



을 신학기 “교사 살려”

성취도 재조사·진단평가 준비·환경정비 ...

“제발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주세요” 하소연

“신학기에 제대로 된 학교일정을 준비하지 못하면 1년 교육을 망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올해처럼 힘든 신학기는 처음입니다. 제발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주세요.”

광주 A초교의 한 교사가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에 쓴 하소연이다.

이 교사는 “신학기 들어 학생들 신상조사와 교실 환경정비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여기에 학업성취도 재조사와 오는 31일로 예정된 진단평가 대비 등의 업무까지 겹치면서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도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아니냐”며

시합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두룩하다.

올해는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때문에 다른 재조사까지 새 학기에 겹치면서 학교 행정의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에서 오는 20일까지 점검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만큼 재조사 일정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광주 모 중학교 교장은 “재조사에서 오류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미리 재 검토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결국 신학기 학교 행정도 시간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털어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초·중·고 3학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교조가 초등학생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맞붙을 놓고 나서면서 일선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광주 모 초교 교사는 “요즘은 정부가 추진하던, 전교조가 추진하던, ‘평가’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면서 “신학기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귀에 들어오거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일선 교사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재조사 등이 이같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숙 전남도 교사는 “학부주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사를 시작했는데 3학년 학생 300명 모두가 참여하는 등 큰 성황을 누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교복 물려주기

91개교 5,244벌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한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 물려주기’에 참가한 중학교는 48개교 2천 348벌, 고등학교는 43개교 2천 896벌로, 모두 91개교에서 5천 244벌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줬다.

시교육청은 시중 교복값이 10만원대(하복)에서 20만원대(동복)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복 공동 구매에 참가한 학교도 중학교 41개, 고등학교 14개교로 나타났다. 김금숙 전남도 교사는 “학부주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사를 시작했는데 3학년 학생 300명 모두가 참여하는 등 큰 성황을 누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7분 해질 18시 31분 달돋이 11시 56분 달질 02시 18분

겨울잠 깬 개구리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해안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광주	흐리고 비	4/11°C
목포	흐리고 비	5/9°C
여수	흐리고 비	6/9°C
완도	흐리고 비	4/10°C
구례	흐리고 비	2/10°C
해남	흐리고 비	3/10°C
장흥	흐리고 비	3/10°C
고흥	흐리고 비	4/10°C
순천	흐리고 비	5/11°C
영광	흐리고 비	3/10°C
진도	흐리고 비	4/10°C
전주	흐리고 비	3/11°C
남원	흐리고 비	2/10°C
속산도	흐리고 비	4/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북	0.5~1.5m	목포 08:20	00:32
남해 서부 앞바다	동~북서	0.5~2.0m	여수 03:28	14:01
		1.0~2.0m	15:42	09:57
				22:0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최저/최고	3/8	-1/12	1/11	1/12	1/14	2/12

벚꽃 9~11일 빨리 핀다

광주 26일·여수 25일

이제 따라 광주에서는 지난해보다 5일, 평년보다 9일 빠른 26일에 벚꽃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수는 지난해보다 5일, 평년보다 11일 빠른 오는 25일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의 만개 시기는 첫 꽃이 관측된 지 약 일주일 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철쭉 심어요” 곡성군은 4일 곡성을 서거리 아산에서 공무원 및 공공산림기부기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참석 주민들이 나무심기에 앞서 줄지어 선 철쭉 묘목을 옮기고 있다. 전남 시·군들은 기후온난화에 따라 식목행사를 한 달가량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북부노인복지타운’ 오늘 첫 삽

광주지역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 관리, 여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북부노인복지타운’이 5일 착공된다. <조갑도>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진입로 주변 부지에서 박관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노인복지타운 기공식을 갖는다.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10만3천㎡의 부지에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4천493㎡)의 노인타운을 신축해 ▲일자리

지원시설 ▲여가문화시설 ▲평생학습 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시설로는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작업장 및 제조사업장, 여가문화시설은 도서실·컴퓨터실·물리치료실·복합탕 등이 들어선다. 또 노인체험학습관·사회교육실·교육센터를 비롯한 평생학습시설과 9홀 규모의 파크볼장, 게이트볼장(3면), 배드민턴장(3면) 등 옥외 체육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남구 노대동 빛고을

작년 교통사고 사망 크게 줄어

차 1만대당 사망자 첫 2명대로 감소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명 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천870명으로 2007년 6천166명에 비해 4.8%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4년 6천563명에서 2005년 6천376명, 2006년 6천327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 작년 6천

명 선 밑으로 내려선 것이다. 작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9명을 기록,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명 대로 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명에 근접했다.

1만대 당 사망자는 2003년 4.4명에서 2004년 3.9명으로 줄어 3명 대에 들어선 이후 작년 처음으로 2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연합뉴스

오늘 경칩...봄 재촉 ‘단비’

경칩인 5일 광주·전남지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온 뒤 밤에는 개쪼갠다”고 4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목포, 신안 등 해안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특히 남해상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선박 운항에 주의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권위 사무소 폐쇄 저지

광주대책위 오늘 발대식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지역 사무소 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 원회’는 5일 오후 3시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대책위는 발대식 직후 광주 지하철 상무역 주변에서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폐쇄 반대’ 서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국제보험기

www.klif.com

‘좋은보험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더 행복해집니다!